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비전교회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로 10길 13
Tel. 033 432 0091

올바른 가치관과 원칙을 중시하는 교회

믿음의 사람을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교회는
2007년 12월 13일에 창립된
복음적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현존하는 성육신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갖는 정체감과
그 사명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라는 말을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듣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도보다 방향을 중시하며
올바른 가치관과 원칙을 중시합니다.

예배 시간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1시
수요저녁예배 오후 7시 매일새벽기도 오전 5시

좋은 만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올바르게 성경말씀을 배우고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010-3654-5525(윤기봉목사)로 전화해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교회는 당신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전교회와의 만남은 정말 좋은 만남입니다.



본질에는 일치와 연대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2017년 7월 30일
오순절 후 여덟 번째 주일

이 주보는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성서적 세계관과 비전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매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주보를 읽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더 늦기 전에 가까운 교회를 찾아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해석이 더 중요하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이 하나 서있다. 그 동상이 서있는 동안은 두 나라가 서로 전쟁이 없이 우호 관계를 유지하자고 합의를 하고 동상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동상으로 말미암아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뻔 하였다. 그 동상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칠레의 한 사람이 지적하기를 그 동상의 예수님은 칠레에다 등을 돌리고 계시다고 했다. 즉 동상의 전면은 아르헨티나를 향했고 뒤는 칠레쪽을 향하게 된 것이었다.

이 일은 칠레 사람들의 마음을 대단히 상하게 하고 자극시켰다. 이렇게 동상을 세우는 일은 칠레를 무시한 처사라고 했다. 칠레 사람들의 감정은 점점 거칠어지고 그것은 곧 폭발할 것만 같았다. 바로 이때 한 기자가 신문에 실은 글 때문에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그 신문의 글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서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예수님의 감시, 감독을 더 필요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신문의 글은 전체 칠레 사람들의 감정을 즉시 무마시키고 무서운 마찰을 피하게 했던 것이다.

이 멋진 해석! 무슨 일에 있어서나 해석이 중요한 것이다!

비전교회는 또 하나의 행복한 가족입니다.

주일오전예배

찬 양	① 아버지 사랑합니다 ② 약할 때 강함되시네 ③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 드리세
예배에로의 부름	윤기봉목사
평화의 인사	목사와 회중
찬 송	천지에 있는 이름 중(찬80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교 독 문	80. 고린도후서 4장
공동기도	다함께
찬 송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교회소식	윤기봉목사
감사와 축복의 기도	윤기봉목사
성경봉독	마태복음 13장 44-46절
말씀선포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
찬 송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축 도	윤기봉목사

주일오후예배

민수기 35장 22-34절
영원한 도피처

수요저녁예배

시편 43편 1-5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교회소식

1. 우리 비전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 오늘은 오순절 후 여덟 번째 주일이며 7월 마지막주일입니다.
3. 오늘 주방봉사는 강성원안수집사님과 김의구집사님이며 다음 주일은 김교수집사님과 정상엽형제입니다.
4. 교회 청소를 수요일 오후 5시 30분에 실시합니다.
5. 출타한 가족들과 기도가 필요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나라의 안정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기도문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순절 후 여덟 번째 주일 아침에 성령 안에서 진실하게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재물과 부요를 주셔서 능히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교회와 복된 가정,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터 그리고 적절한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임을 잊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성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 삼으신 목적을 알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우리의 이웃을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사데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알지 못하는 저희가 회개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충만한 성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 모든 공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본질에는 일치하고 연대하며 비본질에는 자유로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